

이임 지헌춘 회장, 취임 이병림 회장

포천라이온스클럽 창립 제9주년 기념식

국제라이온스협회 354-H지구 포천라이온스클럽 창립 제9주년 기념 및 회장 이·취임식과 경북레오클럽 제4주년 기념식이 6월2일 오후6시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포천라이온스클럽 김진수 총무의 사회로 제1부 기념식, 조희선 총무의 사회로 제2부 회장 이·취임식, 제3부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와 화합으로 함께 하는 라이온'이라는 2007-2008 총재 주제로 활동해온 포천라이온스 클럽의 이날 행사는 포천사회에 라이온스타의 윤리강령을 철저히 지켜 봉사해 온 1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1년 새롭게 봉사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천라이온스클럽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2007-2008) ▶ 회장 지헌춘 ▶ 직

전회장 김형석 ▶제1부회장 이병림 ▶제2부회장 신중문 ▶제3부회장 신중문 ▶총무 김진수 ▶재무 조희선 ▶라이온테마 곡운 ▶테일루스타 이병우(2008-2009) ▶회장 이병림 ▶직전회장 지헌춘 ▶제1부회장 신중문 ▶제2부회장 신중문 ▶제3부회장 김진수 ▶총무 조희선 ▶재무 이병우 ▶라이온테마 남형우 ▶테일루스타 곡운 ▶감사 홍형기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국제라이온스협회 354-H지구 포천라이온스클럽 창립 제9주년 기념 및 회장 이·취임식과 경북레오클럽 제4주년 기념식이 6월2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됐다.

“각계각층의 指導者 양성에 최선”

포천청년회의소 제33주년 창립기념식

포천청년회의소 제33주년 창립기념식이 6월12일 오후6시 용정결혼회관 3층에서 김영우 국회의원,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양종렬 경찰서장, 황일현 농협시지부장, 문석균 경기지구청년회의소 회장, 김경수 서울여자청년회의소 회장, 자매결연을 맺은 타이완의 진치위 회장 과 전국 각 지역 JC회장단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유승진 포천청년회의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포천JC는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숭고한 JC정신아래 창립 33주년을 맞아 지도역량사업, 청소년사업, 지역 사회사업,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민과 함께 젊은 문화 육성과 지역유대를 형성하고 리더십 개발을 통해 각계각층의 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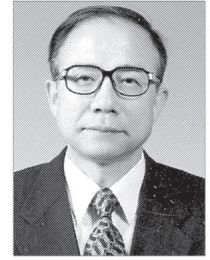
장 특별표창 지도역량분과이사 이동수 ▶10년 재직패 회원 조현기 ▶대외표창 ▶포천시장 의무부회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사무국장 최영호 ▶포천경찰서장 회원확충분과이사 전형준 ▶포천소방서장 의전분과이사 서일석 ▶포천교육장 청소년분과이사 최중훈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청년회의소 제33주년 창립기념식이 6월12일 오후6시 용정결혼회관 3층에서 개최됐다.

추천! 이야기 한마당 큰 고난을 이겨내는 힘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새는 태어날 때부터 알 껍질이라는 고난에 부딪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조그맣고 힘없는 아기 새를 위해 대신 껍질을 깨준다면, 새는 한결 쉽게 세상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새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절호의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새를 도와줬다기보다 망친 셈이지요. 언젠가 그 새는 분명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어서 더 큰 고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고난으로 수 차례 단련된 사람만이 더 큰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법입니다.

김스토브(인생 상속자)중에서 (문의 011-342-5834)

“양치식물 200여종 만날 수 있다”

평강식물원 ‘제2회 양치식물전시회’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에 위치한 평강식물원은 6월 14일부터 8월17일까지 양치식물전시회를 개최한다.

200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양치식물전시회는 국내외의 다양한 양치식물 150여종을 전시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양치식물전시회를 위하여 새롭게 단장한 고사리원은 동글게 말려 있다가 펼쳐지는 고사리의 순 모양으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며 국내외의 양치식물 200여종을 분류군에 따라 전시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치식물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에게는 분류군 사이의 비교·연구가 편리하도록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평강식물원의 양치식물전시회는 깊은 숲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양치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식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자연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강식물원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7시까지 개장하며 폐장 1시간전까지 입장 가능하다.

(☎031-531-7751)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북면, 일일차집 통해 사랑나눔

기수연합, 적십자 부녀봉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영북면 기수연합회와 적십자 부녀봉사회(회장 양승자)는 6월10일 영북면사무소에서 일일차집을 통해 모금한 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 3명에게 전달했다.

영북면 기수연합회(회장 강용훈)와 적십자 부녀봉사회(회장 양승자)는 6월10일 오전 11시 영북면사무소에서 일일차집을 통해 모금한 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 3명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31일 영북면소재 풍년다방에서 일일차집을 개최하며 티켓 3천200장을 비롯하여 모금한 금액 1천874만7천320원중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1천437만2천520원 중 1천2백만원을 안순옥 씨등 주민 3명에게 각각 400만원씩 나누어 전달하고 남은 237만여원은 불우이웃돕기 통장에 적립하여 상시 모금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강용훈 기수연합회장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통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양승자 적십자 부녀봉사회장은 “많은 분들이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이들에 대한 도움이 부족한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움을 받은 주민은 5년 전 쓰러져 현재 전신마비로 지내는 안순옥(45세)씨, 4년전 유방암 수술후 악화되어 현재 폐로 전이되어 소아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 실명, 왼쪽 공팔, 체장 기능 상실인 이은숙(40세)씨 등 3명이다.

김미경 주부영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저소득층 주택 무료 개량사업 입주식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G-HOUSING 4호점’

6월12일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286-2번지, 포천시가 경기도,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무료개량사업인 G-HOUSING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된 G-HOUSING 4호점 입주식이 개최됐다.

이주석 도의원, 경기2청 유영봉 주택과장, 대한주택공사 김원근 서울지역본부장, 박찬홍 임대사업단장과 포천시 이영재 도시건설국장, 장금태 건축과장, 동네 주민 등이 참여해 입주식을 축하했다.

‘G-HOUSING 리모델링사업’은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거주자 중 경제적 문제로 주택개량을 하지 못

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포천시에서는 가산면 우금리 이종순(40)씨가 선정돼 이날 입주식을 갖게 됐다.

당초 공사는 현관을 새롭게 신축하고 기존 창고는 이전설치, 내부바닥 난방 및 내부 인테리어를 비롯 양변기, 위생기기를 설치하는 등 기존의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전면 수정해 신속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대한주택공사는 건물신축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침대, 옷장 등을 추



6월12일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286-2번지, 포천시가 경기도,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무료개량사업인 G-HOUSING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된 G-HOUSING 4호점 입주식이 개최됐다.

가 지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

가 돼 희망의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3대 다발재해를 예방합시다!” “안전을 조이세요!”

작년 한해 90,147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협착·전도·추락 등 3대 다발재해로 43,94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마!”, “내가?” 하는 안전의식- 한번 더 확인하고 한번 더 조여주세요.

소중한 생명이 지켜집니다.

지난 해

협착	15,881명
전도	16,231명
추락	11,834명